

■ 서남해안 포럼 상임대표 정 찬 용 前 청와대 인사수석

“특별법 입법 민간차원 지원”

“서남해안 특별법이 올해 내에 차질 없이 입법, 전남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민간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2일 사단법인 서남해안 포럼 상임대표로 선임된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은 “오는 18일 창립 1주년을 맞아 조직 개편이 되면서 서남해안 포럼 진흥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며 “공동 대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서남해안 포럼은 이 과정에서 잘되고 있는 점은 칭찬하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는 등 적극적 모니터링 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 대표는 “서남해안 특별법의 성공적인 입법을 위해 설명회와 토론회 개최 등의 개최를 통해 전남도

“설명회·토론회 개최 전남도민 참여 확대”

민의 참여를 확대할 생각”이라며 “지역 국회의원들도 서남해안 특별법 제정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해안 특별법 등 서남해안 특별법과 비슷한 내용의 특별법이 국회에 상정된 것과 관련, 정 대표는 “어차피 국회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조정이 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서남해안 특별법이 더욱 특화되고 사업 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창립 1주년 맞아 조직개편 김정태·서재경씨 등 동참”

단에 기존 김정태 전 국민은행장과 조우현 전 건교부 차관 이외에도 서재경 SPR 경영연구원 대표, 최태욱 민주평통 전남부회장 등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일단 서남해안 포럼에서는 특별법 제정을 위한 준비는 어느정도 마친 상태”라며 “국무총리실의 서남해안 추진 기화단에 기본적인 내용을 제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서남해안 특별법에 내실 있는 내용을 담기 위해 정부 및 국회와

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에 나설 것”이라며 “특히 서남해안 특별법이 정부가 입법하게 된다면 정치적 오해의 소지 등이 있으므로 의원 입법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특히 서남해안 특별법 통과 이후에 만들어야 할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대해서도 지역의 현황 등이

盧대통령 “민주 지도자는 말로 통치”

“대통령 말이 많다”는 비판에 정면 반박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의 장점이 단점으로 지적돼온 ‘다변(多辯)’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28일 정책기획위원회 위원들과 가진 오찬에서 민주주의의 향후 과제 중 하나로 ‘소통’에 대한 견해를 얘기하면서 “대통령이 말이 많다”는 비판에 반론을 펴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2일 청와대 브리핑에 올린 ‘소비자주권의 시대를 위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노 대통령의 오찬 발언을 자세하게 소개했다.

이 글에서 노 대통령은 “말을 줄이려”는 언론의 충고에 대해 “독재자는 힘으로 통치하고 민주주의 지도자는 말로써 정치

를 한다”고 반박했다.

노 대통령은 말을 잘해 성공한 지도자로 토니 블러어 영국 총리와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을 꼽으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말 못하는 지도자는 절대로 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클린턴에 대해 “말의 달인, 말의 천재 아니냐”며 “말만 잘한 게 아니라 그런 말을 할 만한 사고력을 가지고 말을 한 것이며, 그 말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지적 능력과 사고력과 철학의 세계가 있으니까 그의 말이 나오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노 대통령은 자신에 대해서도 “말로써 토론하고 그렇게 해서 성장하고, 말로써

선거하는 것”이라면서 “내가 선거할 때 말 못하게 했으면 대통령이 어떻게 되었겠느냐”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다시 ‘말을 줄이려’는 비판을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일갈한 뒤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수단 가운데 중요한 것이 인사권과 말 아니겠느냐”고 했다.

노 대통령은 “날더러 말을 줄이라고 한다. 합당한 요구가 아니다”면서 “환경이 이렇다 보니 부득이 저도 온몸으로 소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온몸으로 소통을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오찬 이틀 전인 26일 국무회의에서 “앞으로는 아니더라도 하나하나 해명하고 대응할 생각이다. 할 일도 열심히 하고 할 말도 다 할 생각”이라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연합뉴스

대선不法, 경선부터 엄단

법무부·검찰, 폭력시위·불법자금 엄정 대처

2007년 새해를 맞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무부, 대검찰청 등 선거 관련 기관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는 공정하고 엄정한 선거관리를 강조하고 나섰다.

검찰은 특히 대선 분위기에 편승한 불법·폭력시위와 지방 토착세력의 정치권 유착 등 부정부패를 적극 차단하겠다고 강경한 의지를 밝혔다. 국정원도 대선 엄정중립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2일 오전 정부부 청청사에서 가진 시무식에서 “17대 대선은 우리나라 앞날을 가능할 중대사인 만큼 법을 집행하는 법무·검찰은 한치의 기용도 없는 공평무사한 자세로 선거사법 단속과 처리 등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상명 검찰총장도 이날 오후 시무식에서 “올해는 국민적 관심이 정치 일정에 집중될 만큼, 이를 틈탄 부정부패와 사회기강 해이가 한층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며 “검찰은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불법정치자금 근절을 위한 수사를 강화하고 지

방 토착세력의 정치권 유착과 조직폭력배의 발호를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과 정 총장 모두 여야를 불문한 ‘공정한 선거관리’를 강조하고 나섰다. 김 장관은 “선거의 공정성 시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당내 경선과정부터 개표까지 여야를 불문하고 엄정하고 투명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장은 “검찰에도 많은 시련과 도전이 있을 것”이라며 선거 때마다 일었던 ‘정치검찰 시비’를 경계한 뒤 “깨끗한 선거가 민주주의의 핵심가치인 만큼 선거사건에 대한 공정한 수사와 심판이 민주주의 발전을 담보한다. 균형 잡힌 자세로 임해 당사자들이 승복할 수 있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김만복 국정원장도 이날 신년사를 통해 “대통령 선거가 예정된 올해는 국정원 변화의 진정성을 재확인시켜줄 수 있는 기회로 탈정치·탈권력 원칙을 더욱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공군참모총장 승리의 V 2일 오전 6시 30분께도 불구하고 요격임무에 나서는 김성일 공군참모총장이 T-50에 탑승하며 승리의 V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무원연금 개혁 시기 늦춰질 듯

박명재 행정부 장관 언급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2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올해 상반기 중 개혁하겠다는 정부의 당초 계획과는 달리 “반드시 연내에 마무리하겠다”고 언급, 시기가 늦춰질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박 장관은 이날 낮 청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연금 개혁은 시기보다는 당사자들 합의가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히고 “다만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개혁을 끝낼 의지를 갖고 추진하

겠다”고 말했다.

이는 올해 상반기내에 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정부의 기존 방침과는 다소 배치되는 것으로, 올해 말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일정 등을 감안할 때 ‘연금 개혁이 물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그는 “올해 상반기 중에 연금 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은 아니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대선 일정이 있더라도 개혁안이 마련되면 여야가 이를 (연내에) 처리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현장과 시각

‘조금증’ 탓하는 박지사가



홍행기 사회2부 차장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빨리빨리’만을 외치는 일부 언론의 ‘조금증’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털어냈다.

박 지사는 2일 새해 들어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전남이 발전하려면 짧게는 20년, 길게는 50년 후의 미래를 내다봐야 한다”며 “미래에 대처할 수 있는 전남민의, 새로운 것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

다. 그는 “미래는 알 수 없는 것인 만큼 실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지만, 전남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는 도전적인 정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또 “최근 일부 언론에서 중동 두바이의 급격한 발전을 가능케 한 지도층을 부각시키고 있지만 이를 리더십과 혼동해선 안 된다”며 “왕조 국가에서는 무엇이든 정해놓고 밀어붙이면 그만이나, 민주국가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두바이를 발전시킨 창의성은 칭찬할 만하지만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방법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지사의 이 같은 발언은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J프로젝트(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개발사업)와 F1(포틀러 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등 지역 최대 현안에 대한 몇몇 언론의 의구심 섞인 시각을 의식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역 일부 언론과 주민들은 3천만 명이 넘는 엄청난 땅을 개발하는 J프로젝트와, 이음조차 낮은 F1대회가 성사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아직까지 100% 확신을 하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제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지만, 지난해 말 검찰이 F1대회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던 것도 이 같은 의구심이 존재하고 있음을 방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박 지사가 이들 사업과 관련된 부정적인 시각이 나오는 데 대해 책임을 언론에만 묻는 것은 지나친 감이 있다.

‘새로운 것, 미래 지향적인 것’을 찾아야 전남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박 지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새롭고, 미래지향적인 것’을 찾아내는 방법 그리고 찾아낸 것들을 구체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다.

전남도가 찾아낸 새로운 성장 동력인 ‘J프로젝트와 F1대회’에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다. 그리고 이들 사업은 미래지향적인 것인 만큼 어느 정도는 불가피하게 ‘실패의 우려’를 안고 있다.

전남도가 추진하는 이들 사업에는 전남 도민의 운명이 걸려있다. 이번에 실패하면 또 다른 사업을 발굴해 시도하기까지 앞으로 또다시 몇 년, 몇 십년을 기다려야 할지 모른다. 이것이 바로 J프로젝트와 F1대회가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이유며, 박 지사가 언론에 서운한 심정을 토로하기보다는 지역민과 언론에 모든 것을 털어놓고, 의논하며, 함께 가려는 자세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redplane@kwangju.co.kr

입소용 전문 빌·난방기 대표 브랜드

입소용 빌·난방기 - 쓸수록 돈 버는 센추리

>> 무담보, 무보증 장기분할 구입 가능 <<

- 75% 연료비 절감!
- 무보증 장기일부
- 무연료 빌·난방

1588-8717, 062-266-7641

우성은수매트!

15년전문의 1주수정통계에서 만든 믿을수 있는 제품

다지침방식/경제적/친환경/건강신체

100% 수정방정질 24시 수정본다

1600-7234